



조이 오브 스트링스

JOY of
Strings

NPO. Joy Of Strings Foundation. Inc

2nd Fl. Hwahyun Bldg. 1475-10 Seocho 3 - Dong, Seocho-Ku Seoul.Korea / T 82-2-3471-6686 / F 82-2-3471-6687

E_mail jinmusicgallery@hanmail.net

Management. Stageone.CO.LTD

515 Seorin Building, 45-15 Youido-Dong, Youngdungpo-Gu, Seoul, Korea 150-891 / T 08-2-780-5054 / F 08-2-786-2274

<http://www.stageone.co.kr>

Violinist Sung-Ju Lee, Artistic Director



Joy of Strings



슈만소나타



소품집 조이



무반주 바흐 소나타



이성주의 작은사랑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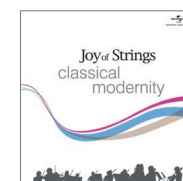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 콘체르토



비발디 사계



classical modernity

예술감독 이성주 (바이올리니스트)

상상력 넘치는 연주와 명료한 음악 슈타트안자이거(Koëlner Stadt-Anzeiger), Cologne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기교 일가제티나(II Gazzentina), Venice

드라마틱하고 지칠 줄 모르는 대가의 감각 엘에이 타임즈(LA Times), LA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적절히 녹여 낼 줄 아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는 1964년 '서울시향 소년소녀 협주곡의 밤'을 통해 데뷔했다. 1966년 이화 경향 콩쿠르 특상을 수상하고, 이화여중에 재학 중 도미하여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음악대학,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Fritz Kreisler 장학금을 받았으며 이반 갈라미언, 마가렛 파디, 도로시 딜레이를 사사했다.

이성주는 1976년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에 선발된 후 1977년 뉴욕 카프만 홀에서 가진 데뷔 리사이틀이 <뉴욕타임즈>로부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했다. 그 후 솔리스트로서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 및 동남아 등을 순회 연주하면서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 받았다. 1979~1980년에는 음악전문지 <뮤지컬 아메리카>가 선정한 미국 최우수 젊은 연주자로 선정되었다. 뉴욕 비에나프스키콩쿠르 우승을 비롯하여 시벨리우스콩쿠르/워싱턴콩쿠르(1975년), 차이콥스키콩쿠르(1978년), 퀸 엘리자베스콩쿠르(1980년), 나움버그콩쿠르(1981년) 등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입상하거나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1984년과 1988년 두차례에 걸쳐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서독,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등 유럽 7개국을 헨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솔리스트로 순회공연을 가지며 국제적인 연주자로 확고한 자리를 굳혔다. 플래그스태프와 아스펜, 입스위치 페스티벌에서의 독주 및 실내악 연주, 링컨센터, 케네디센터 등 미국 전역에 걸친 도시와 대학에서 독주회 및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뜨거운 갈채를 받아 깊이 있고 개성이 뚜렷한 연주자로 부각되었다. 또한 웨이브 힐 트리오의 멤버로서 수많은 실내악 연주활동, 헝가리 국립교향악단을 비롯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볼티모어, 시애틀, 무라비안, 홍콩 필하모닉, 대만 심포니 외에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1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1977년 제2회 ‘대한민국음악제’에 초청되어 독주회를 가졌으며, 1982년 제7회 ‘대한민국음악제’에 초청되어 KBS교향악단과 협연하는 등 바쁜 해외활동 중에도 국내 음악 팬들과의 만남도 지속했다.

2001년 11월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협연은 청중과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으며 보기 드문 호연으로 기록되었다. 드보르자크 서거 100주년 기념해인 2004년 체코 모라비아안오케스트라의 초청을 받아 유서 깊은 프라하 드보르자크 홀에서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해 현지 관객과 평론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6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카자흐스탄 국립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알마티콘서트홀에서 국립교향악단과 협연하였다. 또한 중국 동방방송의 초청으로 상하이콘서트홀에서 독주회를 열었고,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싱얼 블루홀에서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했다. 2007년 데뷔 30 주년을 맞아 뉴욕을 비롯해 서울과 대구, 김해, 대전에서 기념 공연을 가졌고, 그 외에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코리아나심포니, 서울바로크합주단, 광주시향, 창원시향, 대전시향 등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2008년 5월에는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초청되어 동유럽의 유서 깊은 연주회장인 프라하 홀에서 베토벤 협연 무대를 가졌다.

미국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이성주는 1994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초청으로 귀국해 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 음악 영재 발굴과 한국 클래식 문화 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성주와 떠나는 음악여행’ 등을 통해 클래식 인구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했고 2004년부터 3년간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호암아트홀 기획연주를 통해 실내악 연주자로서의 명성도 확고히 얻었다. 한국의 양상을 연주의 저변 확대를 위해 드보르자크 페스티벌, 채임버 뮤직 오브 프랑스의 기획 및 예술감독으로 활동하였고, 2007년 처음으로 내한한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베헤 페스티벌에서 연주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총10개)을 하루에 연주하였고, 2010년 슈만 소나타 전곡, 2011년 브람스 소나타 전곡을 독일의 중견 피아니스트 올리버 케른(Oliver Kern)과 연주하였다. 또한 1997년 국내 대표적인 앙상블로 자리잡은 현악앙상블 ‘조이 오브 스트링스’를 창단해 예술감독을 맡고 있으며, 그의 폭넓은 음악적 경험과 탁월한 지도력에 힘입어 ‘조이 오브 스트링스’는 밝고 활기 넘치는 연주단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음반은 <violin concertos>(2011),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2009), <비발디 사계>(2007),<이성주의 작은 사랑 노래>(2003), <바이올린 소품집 Joy>(1995), <바흐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1998),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1986) 등이 유니버설 뮤직을 비롯해 다수의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었다.

Violinist Sung-Ju Lee, Artistic Director

“... a tone of pure gold" (The Journal Record)

A violinist of dazzling technique and rare sensibility, Sung-Ju Lee has captivated audiences around the world with her "imaginative playing and luminous sound"(Koëlner Stadt-Anzeiger, Cologne), her "impeccable technique"(II Gazzentina, Venice), and her "taste for the dramatic and unflagging sense of authority"(Los Angeles Times).

Ms. Lee launched her solo career with debut recital presented by Young Concert Artists series in 1977 and was immediately recognized as "a first-rate violinist" by The New York Times. Her list of prizes includes the Ewha-Kyunghyang Concour of Korea at age of 11 and the New York Wieniawski, Sibelius, Tchaikovsky and Queen Elisabeth International Competitions.

Her list of accomplishments is impressive, beginning with her appearance as a soloist with the Seoul Philharmonic at the age of 9. In the U.S., she has performed with the orchestras of Saint Louis, Seattle, Baltimore, Florida, Ft. Lauderdale, Duluth, and Roanoke, among numerous others. Around the world, she has played solo with the Hong Kong Philharmonic, Taiwan Symphony, KBS Orchestra and Orquestra Sinfonica in Caracas, Venezuela.

Sung-Ju Lee is a graduate of New York's Juilliard School, where she studied with Ivan Galamian, Margaret Pardee and Dorothy DeLay, and won the Fritz Kreisler Fellowship upon graduation. Her other teachers include Felix Galimir, Josef Gingold, Eun Dong Lee and Yong Yun Kim.

In 1994, Sung-Ju Lee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at the prestigiou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Seoul, Korea. Since moving to Korea, she has been actively performing in her native country. Some of her most exciting performances include a nine-city national tour with all-Brahms programs; and joy of Music a 5-concert series in which Miss Lee’s versatility is demonstrated in unaccompanied solo recital, recital with piano , and in chamber music. She also performed as guest soloist with the Hungarian State Symphony, the Busan Philharmonic, the K.B.S Symphony Orchestra (on regular subscription concerts), the Seoul Philharmonic, the Suwon Philharmonic on there European tour. Miss Lee’s other highlighted performances include the guest appearance with the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the Berliner Symphoniker, the Moravian Symphony Orchestra and the Prague Philharmonic Orchestra in Prague, the Kazakhstan State Symphony in Almati and the Pleven Philharmonic Orchestra in Bulgaria.

In 2009, she challenged herself to play the complete 10 Beethoven sonatas in one day, which sets the record of being the first time among violinists. Furthermore, she continues to perform complete Sonata of Schumann and Brahms in 2010 and 2011. This gives her the opportunity to record the Brahms Sonatas which will be released in the fall of 2012.

In 1986, Miss Lee made her debut recording with two Schumann Sonatas, released by the Musical Heritage Society. Her other recordings include ‘Popular Suite and Kreisler ‘(1992, Musical Heritage Society), ‘Bach’s Unaccompanied Sonatas & partitas’(1988 Samsung), ‘Romantic Short pieces’(2003, Ales2), ‘Vivaldi’s Four Seasons’(2007, Universal), Beethoven Violin Concerto(2009, IPA) and the ‘Violin Concertos’ (2011, Universal).

Professor Sung-Ju lee is the founder and Artistic Director of a string ensemble ‘Joy of Strings’ which first formed 1997. The ensemble is in its 15th year and continues to grow to be the leading group of the world.

Joy 오브 스트링스

수준 높은 앙상블과 깊은 음악적 완성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정상급 연주단체 조이 오브 스트링스 (Joy of Strings)는 1997년 바이올리니스트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성주교수가 창단했다. 조이 오브 스트링스는 이성주 예술감독의 폭넓은 음악적 경험과 열정을 자양분으로 15년에 걸친 무대정험을 통해 탄탄한 팀워크를 다졌으며, 넘치는 활기는 이들만이 보여주는 특별한 에너지의 비결이다. 조이 오브 스트링스는 수많은 초청연주회와 정기적인 기획연주회로 음악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Joy Of Challenge... 세계로 뻗어나가는 조이 오브 스트링스

2006년은 조이 오브 스트링스에게 잊지 못할 한 해였다.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창작무용 '춘앵전'과 비발디의 <사계>가 어우러진 '사계를 위한 만남'이라는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이 공연은 음악, 무용, 영상이 결합된 독특한 작품으로 독창성과 창의성이 높이 평가되어 그 해 문화체육관광부 후원과 벨기에 앤트워프시 초청으로 앤트워프 싱얼홀 무대에 올랐다. 이 공연은 한국 실내악의 높은 예술성을 알리고 조이 오브 스트링스가 세계적인 실내악단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또한 유니버설뮤직을 통해 조이 오브 스트링스의 첫 앨범인 [Classical Modernity]를 발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자신들의 음악에 한계를 두지 않고 더 많은 관객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조이 오브 스트링스는 지금보다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Joy Of Performance...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다져진 수준 높은 연주

조이 오브 스트링스는 1997년 12월 창단연주회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뒤이어 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경기도문예회관 등 전국 공연장의 기획연주회에 잇따라 초청되어 신인 연주단체답지 않은 놀라운 음악적 기량을 선보여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크누아홀과 오퍼스홀의 개관 연주회와 영산아트홀, 세종 별밤페스티벌, 강원도 봉평 인촌마을음악회, 충무아트홀 ‘굿모닝콘서트’, 고양 아람누리 ‘마티네콘서트’ 등 초청연주회를 통해 한층 성숙한 앙상블을 선보였다. 이러한 활발한 연주활동과 기량을 인정받아 제1회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떠오르는 연주가' 시리즈에 초청되었다. 2005년 12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 선정되었고 2009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명실상부한 한국의 정상급 앙상블로 자리매김 하였다. 2011년 10월 (사)여성문화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여성문화인 시상식에서 실내악 저변확대 및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문화예술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Joy Of Communication... 음악으로 완성되는 관객과의 소통

조이 오브 스트링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성주와 떠나는 음악여행’ 시리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이 시리즈는 클래식에 친숙하지 않은 클래식 입문자들에게 ‘듣기 쉬운 클래식 음악’이라는 컨셉트로 큰 호평을 받으며 조이 오브 스트링스의 브랜드 콘서트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조이 오브 스트링스는 공연장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두지 않고 ‘수원 행궁시리즈’, 한국메세나협회의회가 주최한 ‘찾아가는 음악회’, EBS의 간판 음악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출연, 영화 ‘말아톤’의 OST 연주회 등을 통해 더욱 폭넓게 대중을 만났다. ‘조이 오브 크리스마스’ 연주회와 인기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와의 전국 순회공연 역시 젊은 관객들과 소통에 성공한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2011년에는 관객과 클래식 음악과의 소통을 컨셉트로 ‘클래식 스토리’를 기획하여, ‘어린이날 스페셜콘서트’, ‘써머콘서트’, ‘현악기 가족이야기’ 등 다양한 기획연주회 시리즈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조이 오브 스트링스는 2012년 용의 해이자 창단 15주년을 맞아 신년음악회 “Dream Of Dragon”을 개최해 음악 팬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용기,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용처럼 음악계를 선도하는 연주단체로 도약할 것이다.

Joy of Strings

A leading classical ensemble of Korea, Joy of Strings has been captivating audiences with its exceptional quality of performances and sheer musical talent ever since its foundation in 1997 by the violinist sung-Ju Lee, professor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K-Arts).Ms. Lee, the Artistic Director, has built up a solid teamwork by leveraging her fifteen years of experience as well as her wealth of expertise and profound passion for music; and the ebullient energy emanating from Joy of Strings is a distinctive trademark of the team. Its numerous invitation concerts and regular scheduled performances have been earning steady praise from both music aficionados and critics alike.

Joy Of Challenge... Taking the Global Stage

2006 was an unforgettable year for ‘Joy of Strings’, during which it showcased “An Encounter with Four Seasons”. The project was a blending of the original dance piece “Chun Aeng Jeon (Spring Lark Dance)” and Vivaldi’s “Four Seasons”, sponsor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A unique combination of music, dance and video, the performance was greatly celebrated for its creativity and originality; it went on to take the stage at a renowned concert hall at Antwerp, Brussels the same year, invited by the city of Antwerp and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Korea. “An Encounter with Four Seasons” proved to be a significant milestone for Joy of Strings in demonstrating the artistic caliber of Korean chamber music and for taking the next step to become a truly global chamber music group. In 2007, “Sung-Ju Lee plays the Four Seasons” was recorded with Joy of Strings and released by the Universal Korea. The ensemble also created quite a stir with their first album “Classical Modernity”, also released by the Universal label (2006). Choosing not to place any self-restrictions on its music, Joy of Strings is on a journey dedicated to reaching out to a broader audience and taking a higher leap forward.

Joy Of Performance... Excellence Built upon Prolific Concerts

Joy of Strings first revealed itself to the world through its inaugural concert in December 1997. A stream of invitations then took it to special concert stages across the nation including Seoul Arts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and Gyeonggi Culture & Arts Center; and the team created a sensation in the Korean music circle by displaying a depth of musical expertise unexpected of a newly established group. Then, Joy of Strings was invited to perform at concerts, such as a concert celebrating the opening of KNUA Hall at K-Arts, Opus Hall, as well as performances at Youngsan Art Hall, Byeol-bam Festival at Sejong Art Center, Incheon Village Concert at Bong-pyeong of Gangwon province, Good Morning Concert at Chung-mu Art Hall, and Matinee Concert at Aramnuri of Goyang city. As a sign of recognition for these prolific and outstanding performances, Joy of Strings was invited to the “Rising Star” series at the 1st Great Mountains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 Nov., 2005, the ensemble was designated by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as one of the leading professional musicians of Korea. Furthermore, Joy of Strings firmly re-established itself as a leading ensemble of Korea by becoming a non- profit Organization in Oct. 2009. In October of 2011, the ensemble won the Special Award for Culture & Arts given by The Women & Culture Network for its contribution to broadening the base for chamber music and bringing it closer to the community. .

Joy Of Communication... Reaching Audiences through Music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hearing the name Joy of Strings is the “Musical Journey with Sung-Ju Lee” series. Launched in 2002, this series scored a major hit with its concept of classical music made easy for beginners, and became the brand concert of the team. Joy of Strings also refused to confine itself to the spatial limit of traditional concert halls, and reached out to a wider audience by participating in Suwon Haenggung Palace series, “Concerts That Come to You” hosted by Korean Business Council for the Arts, a prominent music program at EBS broadcasting station, and soundtrack concerts for the movie “Marathon.” Its Joy of Christmas concert and the Korean national tour of the popular Japanese pianist Yuhki Kuramoto were also meaningful successes at connecting with a younger audience. The team’s “Classic Story” series in 2011 focused on communicating through classical music as the key concept, and delighted audiences with its various performances including a special concert for Children’s Day, summer concerts, and “A String Family Story.” Now into its fifteenth year, Joy of Strings presented its much-acclaimed “Dream of Dragon” concert to welcome in the year of the dragon. Like the mythical creature symbolizing courage and hope, Joy of Strings will be soaring high into the future , with a dream of becoming the leading light to musical world.